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인문교육의 중요성
: 엘리자베스 1세의 성공과 휴머니즘 교육

허구생*

I.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기까지
II. 잉글랜드의 휴머니즘과 엘리자베스의 교육
III. 엘리자베스의 난제들
IV. 실용적 휴머니즘에 입각한 엘리자베스의 문제 해결

국문요약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는 국민적 갈등과 분열로 위기에 놓여있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가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라는 취약점에 더해, 가톨릭과 신교 사이의 종교 갈등 등 숱한 난제들을 헤치고 성공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사상, 상황을 기민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정치적 사려(political prudence)', 그리고 국민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탁월한 연설 능력이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종교적 '중도(via-media; middle way)' 정책은 가톨릭과 신교의 극단적 주장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감한 부분은 절충의 여지를 남겨둔

* 前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역사학 박사, hurz001@hanmail.net

종교적 타협책이었다. 이것은 윤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중용과는 달리, 단순하게 양 극단의 가운데를 질러 중간 영역을 설정한 것으로서 이는 상당 부분 엘리자베스의 창안이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당시 엘리트 계층에게 확산되고 있던 커먼웰스 공동체론을 십분 활용하면서 자신을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전장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보다 빈번하게는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우주론적 존재이며, 공동체의 유일한 통합자임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켰다. 특히 자신과 신민들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연대'로 규정함으로써, 신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모든 성공의 배경에는 그녀가 받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입각한 교육이 있었다. 그녀를 직접 가르쳤던 윌리엄 그린덜과 로저 에스컴, 그리고 존 체크, 리처드 콕스, 그리고 토머스 스미스 등은 당대의 일급 학자들이었으며, 실용주의와 법의 상대주의, 그리고 공동체론을 공유한 휴머니스트들이었다. 특히, 어린 여성에게 대중연설의 기술을 가르친 그들의 선견지명은 가히 발군이라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의 인문교육, 르네상스 휴머니즘, 커먼웰스, 엘리자베스의 대중연설

I.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기까지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를 지난 천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빼어났던 정치 지도자로 선정했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로 붕괴 직전에 있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는 것이다. 국민통합, 균형재정, 평화정책이 그녀의 성공적 통치를 이끈 핵심적 정책기조였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대사건을 가져오게 한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 앤 불린의 딸이다. 1533년 6월 앤이 잉글랜드의 왕비로 즉위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앤은 9월 7일 아이를 출산했는데, 헨리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게도 아들이 아닌 딸이었다. 헨리는 그 딸에게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 아무런 애정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뒤, 앤은 간통 및 대역죄로 체포되었고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이 되었다. 그녀의 간통 혐의가 사실인지, 당쟁이 만들어낸 음모였을 뿐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앤에게 실망한 헨리의 마음을 읽은 정적들의 음모가 개입되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어머니 앤 불린이 대역죄로 처형당하고 졸지에 사생아 신세가 됐을 때, 그녀의 나이 겨우 세 살이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던 소녀 엘리자베스는 보호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계모였던 캐서린 파가 그녀를 돌보기 시작한 것은 1543년이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의 나이는 열 살이었다. 사생아 신세였던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다시 왕위계승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도록 헨리를 설득한 사람도 캐서린 파였다. 이것은 1544년 의회 입법으로 공식화되었다. 캐서린은 첼시에 있던 그녀의 거처로 엘리자베스를 불러들였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인정하고 심지어 사랑해 주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아무리 심술궂은 성격에 피부경화증마저 앓고 있던 부친이라지만, 그가 캐서린 왕비의 무릎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고 있는 동안만큼은 엘리자베스에게 미소를 보여주곤 했다. 이제 그곳에서 엘리자베스는 친모의 악덕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덕성을 내뿜는 존재로 탈바꿈했다. 예컨대, 1545년, 열두 살의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소유의 《기도와 명상》이라는 전범서를 부친이 보는 앞에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틴어로 각각 번역하는 재주를 선보였다. 이렇게 해서 부친의 호감을 회복한데 힘입어, 그녀는

자신과 불과 세 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 에드워드와도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1547년 1월, 헨리가 죽고 이 소식이 이들 남매에게 전해졌을 때, 에드워드는 심신을 가누지 못하고 이복 누나에게 안겨서 흐느끼며 울었다. 또한 그들은 같은 개인교사들로부터 배웠다. 높은 학식을 갖춘 캠브리지 대학 휴머니스트 존 체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강의는 여성은 경박스럽다는 따위의 고정관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1)]

비교적 사이가 좋았던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르면서 엘리자베스의 삶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죽고 1553년 이복언니 메리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메리 입장에서 볼 때, 이혼의 멍에를 쓰고 쓸쓸한 죽음을 맞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원인제공자인 앤 불린의 딸을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가톨릭 복원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던 메리가 후사 없이 죽음을 맞게 될 상황에 이르자, 그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런던탑에 갇히게 된 엘리자베스는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 했다.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기적처럼 왕위에 올랐을 때, 그녀의 나이 스물여섯이었다.

1558년 가을 무렵, 메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가 태아가 아니라 종양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단으로 단죄된 사람들은 여전히 연기 속에서 불타고 있었지만, 엘리자베스가 살고 있는 하트퍼드셔의 해트필드 하우스로 가는 길은 그녀를 향한 충성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려는 잉글랜드 귀족들로 인해서 분주했다. 인파에 섞여서 엘리자베스를 만나려고 그곳으로 간 스페인 대사 페리아 백작은 튜더 가(家) 두 이복 자매의 너무나 다른 성격에 당황스러워 했다. '그녀는 매우 자만심이 강하고 영리한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친이 일을 처리하던 방식을 철저하게 교육 받았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녀가 종교문제에 있어서 비우호적일까 매우 두렵다.…그녀의 편에 서기 위해 무덤에서 소생하여 즐겁게 일어난 자들은 이 왕국 전체를 통틀어 모두 이단 아니면 반역자들이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지

1) Simon Schama, *A History of Britain I: At the Edge of the World? 3000BC-AD1603* (BBC, 2000), pp.280-281.

배당하지 않을 각오이다.'

1558년 11월 17일, 런던으로부터 전령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다. 전해내려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 된 오크나무 옆에 서있거나 혹은 앉아 있다가 언니의 죽음을 전해들은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손가락에서 빼낸 반지를 받아서 자신의 손가락에 끼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시편 118편의 한 절을 라틴어로 읊었다고 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놀랍도다.(A domino factum est mirabile in oculis nostris.)"[2)]

그녀가 헤쳐 나가야 할 난제는 하나, 둘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잉글랜드를 공동으로 통치했던 언니 메리와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였다. 여성 군주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의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중세와 달리 군주가 왕국 전체를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조세권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직업적 관료제도는 물론, 정책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찰도, 상비군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종교였다. 루터와 칼뱅 등이 개혁의 불을 지른 이후 종교문제는 유럽의 그 어느 군주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 그녀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녀가 받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II. 잉글랜드의 휴머니즘과 엘리자베스의 교육

1) 기독교적 휴머니즘(도덕론적 휴머니즘) vs. 실용적 휴머니즘

한스 바론은 이탈리아의 휴머니즘 운동을 두 단계로 구별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문학 및 학문 운동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시민적, 정치적

2) Simon Schama, *A History of Britain I*, p.286.

운동이었다. 후자가 정치적 참여를 시민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는 '시민적(civic) 휴머니즘'이다. 15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한 휴머니스트들은 교육과 학문의 목적이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고 믿었다. 역사학, 정치학, 수사학 등이 학문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도 이 시민적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 중에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공부하되, 그 목적이 현실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었을 경우, 그들의 학문을 가리켜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 부른다. 고전 공부를 통해 현실을 보고, 자신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요체였다. 정치학이나 역사학은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가져야 할 통찰력을 기르는 필수 학문이었고 수사학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다른 동료 시민들을 설득시킴으로써 사회개혁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주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렇듯 시민적 성격을 가지는 이탈리아 휴머니즘은 알프스를 넘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른바 북방 휴머니즘 또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다. 북방 휴머니즘은 인간의 내면적 덕성 함양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예수를 내면적 덕성이 최고 경지에 달한 지고의 모델로 삼았기에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에라스무스와 후안 비베스, 그리고 토머스 모어 등이 주도한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교육과 학문을 통해 개별 인간의 덕성을 함양시키면 사회는 저절로 더 좋은 사회로 이행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들은 교회의 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현실의 교회가 기독교 본래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일종의 타락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으며, 성직자들이 자성하여 진정한 교회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16세기 초 영국의 사회개혁을 주도한 것은 바로 이 기독교적 휴머니즘이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잉글랜드의 휴머니스트들은 제도적,

법적 개혁 등 어떤 외형적 변화보다는 사람들 개개인의 정신 내부에 덕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주와 지배계층, 그리고 교회가 도덕적 덕성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토머스 엘리엇 등이 덕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덕치(virtuous rulership)를 실현하기 위해 군주가 좋은 도덕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3)]

그런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 논제를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거는 순간, 기독교적 휴머니스트 그룹의 동질성이 깨지기 시작했고, 잉글랜드에서는 1530년대 초반 국왕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와 결별하게 되자,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운동의 추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루터 이후 휴머니스트라기보다는 가톨릭 옹호의 선봉에 섰던 모어는 목숨을 잃었고,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 메리의 교육을 맡았던 비베스는 헨리 8세의 이혼에 반대했다가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런데 이들을 대신해서 등장한 다른 성격의 휴머니스트 그룹이 있었다.

토머스 스타키, 리처드 모리슨, 토머스 스미스 등의 차세대 휴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개혁관은 에라스무스 식의 도덕적 절대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감안한 정책이 사회 개혁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즉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의 운용과 정부 주도의 사회제도 재확립 노력이 보다 긴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들 젊은 세대 휴머니스트들의 새로운 시각은 비교적 실용적이고 유동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로 나타났다. 사실상 16세기 잉글랜드의 모든 개혁이 의회 입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법에 의해 인간 본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생각이 도덕론적 입장에 섰던 앞 세대 휴머니스트들에 비해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3) Thomas Elyot, *The Book named Governor*, ed. with introduction by S. E. Lehmberg (London, 1962), pp.2-5 *et passim*.

이들 실용론적 휴머니스트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동선의 증진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커먼웰스'사상이다. 커먼웰스라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 사이의 상호 필요성과 의존성에 의해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었으므로[4]의 공동선의 실행이 전제되어야만 그 존재 목적이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개인이익의 추구는 사회계층간의 조화를 깨뜨려 커먼웰스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이익의 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커먼웰스 사상에 의하면 통치자의 기본 책무는 바로 사회 전 구성원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게 독려하고 각 구성원간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었다.[5] 이들은 의회입법과 정부의 강제적 공권력을 수단으로 개혁을 실현해야 된다고 믿었으며, 법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또한 법이 사람의 자연적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화하는 사회 조건에 맞도록 늘 조정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법의 상대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법이 사회개혁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6]

이들은 또한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마키아벨리적인 성향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 잉글랜드의 휴머니스트 공동체에서 마키아벨리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정치적 사려(political prudence)'가 처음에는 비판과 경멸의 대상

---

4) 이러한 사회 각 구성원간의 유기체적 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신체의 비유(body analogy)'가 자주 사용되었다. 공동선을 외면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빈민 구제의 당위성 설득에 자주 사용되었다. 이 신체의 비유는 원래 중세 잉글랜드와 유럽 각국에서 중세의 계급질서를 정당화하는 수사로서 가끔 사용되었던 것인데, 16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왕권행사의 정당성과 책임론을 뒷받침하였다.

5) Thomas Starkey, *A Dialogue between Cardinal Pole and Thomas Lupset*, ed. by J. M. Cowper, E.E.T.S. (London, 1878), pp.48, 56, 58; Elyot, *Governor*, p.1; *Tudor Economic Documents*, vol.1, p.44.

6) 스키너는 스타키의 이러한 법 존중주의가 이탈리아 휴머니스트 로렌쪼 발라(Lorenzo Valla)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Skinner, *Foundations*, pp.206-208.

이었으나 점차 군주가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특히 1530년대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공동선 보호'의 차원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7)]

엘리자베스의 교육을 맡게 된 휴머니스트 그룹은 바로 이 실용론적 휴머니스트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었고, 보다 특정해서 말한다면 '캠브리지 그룹'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각별한 사제, 동료 지간으로 엮여있던 존 체크, 로저 에스컴, 윌리엄 그린덜 등이 그들이었으며, 이밖에 리처드 콕스, 토머스 스미스, 니컬러스 베이컨 등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미스, 체크, 에스컴은 차례로 캠브리지 대학의 대표 웅변가를 역임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수사학적 전통은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엘리자베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열한 살 이전의 엘리자베스가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녀의 교육에 대한 첫 기록은 1544년 통과된 왕위계승법에 의해 지위가 복원된 이후에 나온다. 그녀는 당시 열한 살이었는데, 이때 이미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의 이복동생 에드워드(후일의 에드워드 6세)가 늦은 여섯 살에 라틴어를 익히기 시작했고, 열 살 때 프랑스어를 공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도 여섯 살 무렵부터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44년 7월 당시 열한 살의 엘리자베스가 당시 부왕의 왕비 캐서린 파에게 쓴 편지는 현존하는 그녀의 서간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는 이탈리아어로 쓴 것이었다. 그해 연말 엘리자베스는 나바르의 마르게리트가 쓴 시집 《죄많은 영혼의 거울》을 번역하고 직접 표지를 장식하여 왕비에게 새해 선

---

7)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250-251; William G. Zeeveld, *Foundations of Tudor Policy* (Harvard, 1948), p.14.

물로 바쳤다. 1544년은 엘리자베스의 학업이 캠브리지 대학의 휴머니스트(인문학자) 그룹과 공식적으로 연결된 해이기도 했다.

존 체크, 리처드 콕스, 로저 에스컴, 윌리엄 그린덜이 그들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사제 관계 또는 선후배 관계로 친밀하게 엮여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개인교사로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은 그리스 고전 전공학자였던 그린덜이었다. 그는 에드워드 왕자의 교육을 맡고 있던 리처드 콕스와 존 체크를 돕기 위해 궁정으로 초빙되었다가 콕스의 권유로 엘리자베스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에스컴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덜은 에스컴의 캠브리지 대학 제자로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리스와 라틴의 고전을 익혔으며, 에스컴은 그의 재능과 품성을 무척이나 아꼈다. 그린덜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엘리자베스에게 그리스어, 라틴어 등을 가르쳤다. 프랑스어, 이탈리어, 스페인어 등의 교육은 캐서린 샴페노언 부인이 맡았다. 에스컴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영역에서 엘리자베스가 얻은 탄탄한 학문적 기초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그린덜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배운 그녀[엘리자베스]의 이해력과 그것을 가르친 그의 근면 중 어느 것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8] 에스컴은 또한 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가 만약 그린덜 밑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학문에 정진한다면 그녀의 라틴 및 그리스 공부의 향후 성취가 참으로 엄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린덜은 1548년 1월 역병으로 사망했다.

엘리자베스의 후견인이었던 전 왕비 캐서린 파와 그녀의 새 남편 토머스 시머는 프랜시스 골드스미스를 그린덜의 후임으로 밀었지만, 당사자인 엘리자베스는 에스컴을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꿋꿋하게 밀고 나갔고 결국에는 에스컴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그린덜을 통해 에스컴을 잘 알고 있었고 라틴어로 서신을 교환하던 사이였다.[9]

에스컴은 어쩌다 궁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교수 나부랭이가 아니라, 당

---

8) *The Whole Works of Roger Ascham*, I, Part 2, Letter CXVII, pp.271-274.

9) Lawrence Ryan, *Roger Ascha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102.

대의 학문과 교육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고전 공부를 통해 사람들이 뛰어난 판단력과 덕스러운 행동을 익히게 된다고 믿은 일급의 고전 학자였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매우 아름다운 서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으로서 일급의 서예가였다. 또한 그는 라틴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게 하는 이른바, '이중번역'이라는 새로운 교수 방법론을 최초로 도입하여 엄격하게 적용한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강압에 의해 습득한 기억은 빨리 잊히고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기억은 오래 간다는 그의 교육 심리학적 이론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에스컴은 캠브리지 대학의 대표 연설자이기도 했는데,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키케로의《웅변가에 관하여》라는 책에 대하여 얘기한 것은 그의 이러한 면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식영역에 속하는 대중연설의 기술을 십대 소녀에게 가르치려한 것은 참으로 별난 생각이었다. 다음은 키케로가 쓴《웅변가에 관하여》의 한 대목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될 때 한 인간으로서 권위 있게 그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웅변가이다. 그의 임무는 해이된 국민을 각성시키고 무절제한 격정을 억제시키는 데에 있다. …… 웅변가보다 더 강력히 德行을 권장해 줄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이며, 그보다 더 열렬히 악의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인가? 누가 그보다 더 준열하게 사악한 자를 탄핵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보다 더욱 고상하게 값있는 인간을 예찬할 수 있겠는가? 그의 규탄보다 더욱 강하게 무도한 욕망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며 그의 즐거운 말보다 더 부드럽게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겠는가?[10]

---

10) Cicero, *De Oratore*, II, 35, tr. E. W. Sutton, (Cambridge, Mass: The Loeb Classical Library, 1967), p.223. 김영한,《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탐구당, 1989), p.102에서 재인용.

에스컴은 1548년 초에서 1549년 말, 또는 1550년 초까지 엘리자베스의 학업을 지도했다. 약 2년간에 걸친 그 시절 엘리자베스의 학업 시간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전에는 그리스 고전과 그리스어 성경을 읽었으며, 이소크라테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데모스테네스 등 라틴어 고전을 읽었다. 오후에는 키케로와 리비우스의 저작을 읽었는데, 키케로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을 읽었고, 리비우스의 것도 상당 부분을 읽었다. 그 외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공부를 계속했고,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스페인어 공부도 이어 나갔다. 로저 에스컴은 그녀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 그녀의 놀라운 자질은 자연의 선물일까, 아니면 행운의 여신이 준 선물일지 말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낸 모든 찬사가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아름다움, 품격, 사리분별력, 그리고 근면성이 그것이다. 그녀는 이제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막 지났는데, 그녀의 위엄과 온화함은 그녀의 나이와 계급에서 발군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종교와 학문에 대한 열정 또한 그러하다. 그녀의 머리에는 여성스러운 약점이 없고, 그녀의 인내심은 남자들의 그것과 동일하며, 그녀의 기억력은 사물들을 재빨리 파악하여 오랫동안 담아놓는다. 그녀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마치 영어를 말하듯 했을 뿐 아니라, 가끔은 내게 유창한 라틴어로 선뜻 말을 걸어왔으며 중급수준의 그리스어로도 얘기하곤 했다. 그녀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글을 쓸 때면, 그녀의 필체는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음악에도 재능이 있으며, 그만큼 또 즐긴다. 장식을 할 때면 그녀는 현람함보다는 우아함을 추구한다.[11]

에스컴은 또한 그녀의 글쓰기와 관련해서, 담백하게 논리를 세우고 멋지게 명료성을 확보하면서 주제를 발전시켜나간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적당한 수준의 메타포를 좋아하며, 또한 반대되는 것들을 비교하고 이들을 한데 잘 묶어서 서로를 절묘하게 대비시키는 것을 잘했다. 사탕발림의 구절들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

11) J. E. Neale, *Queen Elizabeth* (London, 1934), p.26.

을 언어적 탁월함 속에서 포장하는 재주가 있었다.[12)]

에스컴은 그가 공식적으로 공주의 개인교사직을 사임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엘리자베스의 학문에 관여했다. 에스컴에 따르면, 그는 1562년 한 해 동안 매일 그리스 고전과 라틴어(로마) 고전을 읽었는데, 그들이 하루에 읽은 양이 보통의 일반 성직자들이 일주일 동안 읽는 양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13)]

III. 엘리자베스의 난제들

엘리자베스는 아마도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태롭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올랐으며, 그녀의 생존이 확보되기까지에는 그로부터 최소한 십여 년의 세월을 더 필요로 하였다. 어느 역사가는 엘리자베스 재위초기의 역사(1558~1572)를 '생사를 결정하는 시험기'("the testing time of the regime- whether it was to live or die")로 규정하였지만,[14)]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의 경과를 이미 알고 있는 후세 사람들의 판단일 뿐 역사의 당사자인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험기는 상당기간 더 이어졌을 것이다.

어쨌건 그 시험기동안 역사는 극히 불투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그녀가 잉글랜드 최초의 여성 군주였다는 점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그보다 앞서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복 언니 메리는 남편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함께 잉글랜드의 공동 군주로 재위했으므로 엘리자베스와는 처지가 달랐다. 여왕이 가지는 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권리 행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권력을 어떻게 분점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확립된 관행도, 어떠한 선례도 없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의 결혼이, 의도한 것이건 그렇지 않건, 지연됨에 따라 엄청난 정국의 불안정

12) Lacey Baldwin Smith, *Elizabeth Tudor: Portrait of a Queen* (Boston, 1975), pp.29-30.
13) J. E. Neale, *Queen Elizabeth*, pp.23-26.
14) Wallace T. MacCaffrey, *The Shaping of the Elizabethan Regime: Elizabethan Politics, 1558-157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p.4.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는 그녀를 지지했던 개신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불운'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에게 여성군주란 좋게 말한다 해도 나랏일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고, 좋게 말한다 해도 남녀 간의 역할이 전도되었다는 의미였다. 여성을 '약한 배(the weaker vessel)에 비유하는 상투적인 영어 묘사는 1526년 발간된 윌리엄 틴들의 영어 성경에 등장한 이후, 남성에 대한 여성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신교적 가족질서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용어가 되었다. 왕국도 결국은 가정의 확대판이었다. 여성에 의해 지배되는 왕국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전(反轉)된 상태였다.

스코틀랜드 칼뱅주의의 핵심적 지도자였던 존 녹스는 여성들의 통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혐오스러운 존재(monstriferous abomination)'일 뿐이었다. "자연은, 내가 말하건대, [여자들을] 더욱 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참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어리석게 만들었고, 또한 우리 경험은 그들이 변덕스럽고, 가변적이고, 잔인하며, 거기에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이 결여된 존재임을 말해준다.…모든 여성의 본성 속에는 좋은 통치자 아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악덕들이 도사리고 있다."

녹스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혹시나 잉글랜드에 신교 정부가 들어서려는 것을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며 마지못해 엘리자베스를 하느님이 진정한 복음을 복원하기 위해 보내신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의 주장이 잉글랜드 내 엘리자베스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 후일 런던 주교에 오르게 될 존 에일머가 쓴 책 《충직하고 진실한 신민들의 보금자리》는 일견 녹스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또 한 명의 여성을 통치자로 선택하신 신이 결정에 당황스러워 하는 그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본성이 나약하고 신체가 허약하며, 용기가 여리고, 일솜씨가 없으며, 거기에다 적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여성을 통치자로 선택하심은 오로지 기적을 행하시려는 그분의 시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는 적었다.[15)]

---

15) Simon Schama, *A History of Britain I: At the Edge of the World?*, pp.287-288.

두 번째 문제는 물리적인 지배수단의 결여였다. 16세기 초기에 이르러 잉글랜드의 왕정은 지방분권적인 중세적 정부를 벗어나 국왕이 전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근대적 '국민군주국가(national monarchy)'로 탈바꿈하고 있었지만, 국왕의 조세권은 여전히 중세적 수준에 묶여 있었다. 평상시 국왕 정부의 예산은 여전히 중세와 마찬가지로 왕령지(王領地) 수입과 관세, 그리고 약간의 봉건세 등으로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평시 예산은 재위 초기에는 연간 약 20만 파운드, 재위 말기에는 약 30만 파운드였다. 16세기 후반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위 말기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 중 왕령지 수입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관세가 44퍼센트, 봉건세가 약 7퍼센트 정도였다. 보조세(Subsidy)라고 하는 의회세가 있었으나, 이는 전쟁, 그것도 외침에 의한 방어 전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가 허여해주는 예산이었다. 즉, 국왕은 오로지 자신의 것만으로 살아야 하고(live of his own), 오로지 국가 위기상황에 한하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6]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엘리자베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전문적인 관료제도도 갖출 수 없었으며, 정책과 법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상비군이나 경찰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그녀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엘리트계급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17]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종교문제였다. 30년 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와 함께 시작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정치적 위기를 함께 불러왔고, 그것은 군주의 잦은 교체와 함께 더 큰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헨리 8세는 '작은 혁명'을 지향했다. 그것은 로마 교황청과의 결별, 그리고 자

16) 허구생, 《근대 초기의 영국: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의 국가 만들기》(한울, 2015), pp.107-108.

17) Penry Williams, *The Tudor Regime*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389-402: William Dunham, "Regal Power and the Rule of Law", *Journal of British Studies*, III (1964), pp.24-56; G. R. Elton, "The Rule of Law in Sixteenth- Century England", Arthur J. Slavin, ed. *Tudor Men and Institutions*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2), pp.266-293.

신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을 차지한다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근본적인 교리의 변화를 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547년 그가 죽고 어린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자,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새로운 신앙이 잉글랜드 국교회에 유입되고 미사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1553년 에드워드가 죽고 메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메리 여왕은 가톨릭 복원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이전의 종교개혁 관련 법령들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신교 성향의 사제들을 교회로부터 축출했다. 5년밖에 안 되는 그녀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약 300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화형으로 죽음을 맞았다.

이미 유럽의 많은 지역이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과 전쟁을 경험하고 있었다. 잉글랜드만이 여기에서 예외가 될 확률은 극히 적었다. 잉글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은 숫자는 비록 적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언제라도 로마 교황청,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프랑스라는 외부 가톨릭 세력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가톨릭 신자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반란을 피해 잉글랜드 안에 몸을 위탁한 이후에는 그 위험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5촌 조카로서 왕위계승 후보의 자격 또한 갖추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메리 여왕 치하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명한 후 칼뱅 치하에서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다가 돌아온 강성 청교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며 오로지 진정한 신교적 교리에 입각한 잉글랜드 교회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에게 엘리자베스는 하나의 간절한 희망이었다.

IV. 실용적 휴머니즘에 입각한 엘리자베스의 문제 해결

1) 종교적 중도정책(via-media)

엘리자베스의 첫 의회는 1559년 1월 25일 열렸다. 정부의 대변인 자격으

로 개회연설을 맡은 국새상서 니컬러스 베이컨은 새 정부의 임무가 '국민을 하나로 통합된 종교적 질서'로 이끄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교적 의견이 다른 동료의원들을 향해 '이단적', '분파분자' 또는 '교황 추종자' 같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문했다. 또한 신학적 논쟁이나 극단적 주장에 빠지지 말고 적절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새 여왕의 의중이 무겁게 담긴 개회사였다.

1559년 2월 종교통일법안과 엘리자베스를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수장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상원에서 부결되는데 주교 전원과 가톨릭인 속인 귀족 일곱 명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 법안들은 엘리자베스의 지위를 수장(Supreme Head)에서 총책임자(Governor)로 격하시키는 등 추가적인 타협을 통해 겨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1559년 채택된 엘리자베스의 종교 문제 해결책은 이른바 중도정책(via-media)으로서 가톨릭과 신교 양측의 극단적 주장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감한 부분에서는 절충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정책적 특징이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 세력이었던 청교도들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을 저버리는 처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녀가 중도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소수의 청교도들에 기대어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으며, 이웃 국가들이 보여주었듯이 끝도 없고 해답도 없는 종교적 갈등을 무제한적으로 증폭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중도정치 또는 '중간의 정치'는 상당부분 그녀의 창안이었다. 이것은 윤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중용의 개념과는 달리 단순하게 양 극단의 가운데 공간을 정책적 허용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그 선례를 찾기 어렵다. 엘리자베스는 그 같은 중간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소한의 평화와 공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임을 설득하고자 했다. 그 공통의 공간 안에서 가톨릭은 가톨릭에 가까운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었고, 신교들은 신교에 가까운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자베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 휴머니즘이 절대적 도

덕과 절대선을 추구하던 에라스무스와 모어 등의 기독교적 휴머니즘과는 거리를 둔 실용적 휴머니즘이었음을 이야기한바 있다. 그들 실용적 휴머니스트들은 법과 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의 본능을 낙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회개혁과 관련하여 실용성, 상대성, 그리고 융통성이라는 방법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도정책'은 이들 휴머니스트들의 실용적 사상을 백분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들 휴머니스트들이 마키아벨리로부터 받은 영향이다. 우리는 흔히 마키아벨리를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의 화신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 오해는 첫 번째,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원리를 주장하는 그의《리비우스의 로마사 논고》를 읽지 않은 데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그의《군주론》을 잘못 읽은 데에서 나온다.《군주론》은 그가 실업자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군주가 가져야 할 책략을 정리하여 메디치 가문에 올린 것이다.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던 피렌체의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군주와 기민한 책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 제기한 군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치적 사려(思慮)'이다. 즉,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책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실, 마키아벨리는 정의, 용기, 인내, 정직, 관대함 등의 전통적 덕성들을 군주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과 품성으로 생각했다. 다만, 국가의 존속과 공익이 위협 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최상의 '책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다만 이때 그 책략은 전통적 덕성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공익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나 파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마키아벨리가 가장 경계하고 비난했던 정치적 부패 그 자체였던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중도정책은 이 같은 휴머니즘적 교육이라는 배경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정책이었다. 그녀의 중도정책이 종교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

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국으로 하여금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1598),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30년 전쟁(1618~1648) 등,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극심한 인적, 물적 손실을 피해가게 함으로써 잘해야 유럽의 중급국가이던 영국을 장차 대영제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이후 영국에서 이 '중도정책' 또는 '중간의 정치'는 합의의 정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2) 유기체적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연대

수사학은 처음부터 엘리자베스가 가진 정치적 수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녀의 연설문은 언제나 그녀가 손수 쓴 것이었고, 여러 차례의 원고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들여 쓴 것이었다. 통치 초기에는 연설문을 남자들에게 대신 읽도록 했지만, 오래 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직접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특별한 효과가 있었다. 호소력에 더해서 용의주도하게 잘 짜인 그녀의 연설은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청중들의 애를 태우거나 겁박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가 연설문을 들고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그녀의 적들과 비판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임을 직감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 나의 사랑하는 신민들이여, 나의 안전을 걱정하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무장한 군중과 마주할 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배신에 대비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확언하건대, 나는 내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신민들을 의심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폭군이나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나는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면서 예의 바르게 처신해 왔으며, 나는 내 신민들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선한 의지를 내 힘의 가장 강력한 근원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운데에 와 있는 것이며, 또한 나는 지금 오락이나 장난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투의 열기가 한창인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단호한 결심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나의

왕국을 바치고, 나의 신민들에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의 명예와 목숨을 맡기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힘없고 미약한 여자의 신체를 가졌음을 알고 있지만, 나는 왕의, 그것도 잉글랜드 왕의, 심장과 복부를 가졌다는 것을 역시 알고 있으며, 그럴진대, 파르마 또는 스페인이나 유럽의 어느 군주이건 간에, 감히 내 왕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나를 부당하게 멸시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불명예를 키우기보다는, 이에 대항하여 내 자신 스스로 무기를 들고, 내 자신 스스로 여러분의 장군이자 재판관, 그리고 전장에서 여러분 각자가 행하는 모든 미덕을 포상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마땅히 포상과 월계관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의 용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군주의 언어로써 약속드리건대,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18)]

이는 1588년 8월 9일, 그녀가 신하들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고 틸버리 군영으로 달려가서 직접 말을 타고 군대를 사열하며 던진 사자후이다. 잉글랜드를 모든 계층의 신민들이 '사랑'이라는 질료로써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이며 사랑의 연대라고 주창하던 그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위기의 시간을 신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 군주'의 이미지를 유감없이 발휘한 연설이었으며, 키케로가 말한 대중연설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긴 명연설이었다.

하원의장, 우리는 그대의 언명과 우리 재산에 대한 염려에 대해 들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확언하건대, 나보다 더 신민을 사랑하는 군주, 혹은 우리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군주는 없습니다. 결단코 내 앞에 있는 보석보다 더 값진 보석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보물이나 재물보다 존중하기에 그토록 값진 것입니다. 내가 물건의 가치를 따질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셨지만, 내가 가진 왕관의 명예는 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함께 이루어졌

18) *Elizabeth I: Collected Works*, eds. Leah S. Marcus *et al*. (Chicago and London, 2000), pp.325-326.

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나를 여왕으로 만드신 바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여왕이기에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나의 신민들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내가 가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는 또한 그대들의 번영을 보고 싶을 뿐, 그것을 넘어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것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바람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나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고자 했으며, 신의 절대적인 힘으로 내가 그대들을 어떠한 위험, 불명예, 수치, 압제,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의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었는바,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은 여러분의 그 도움이 나를 향한 그대들의 사랑과 충성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에 관해 이것만은 꼭 말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탐욕스럽게 이익을 다툰 적이 없으며, 어떤 것에 집착하는 군주도, 그렇다고 낭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세속적인 재물에도 마음을 둔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이 내게 준 것을 가납(嘉納)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함이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하원의장께 간청하건대, 그대가 상상하는 바, 나의 마음이 전하는 뜻을, 그러나 나의 혀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정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19]

이것은 1601년 11월 30일 그녀의 마지막 의회에서 엘리자베스가 행한 연설의 앞부분이다. 통상 여왕은 의회의 폐회일에 맞추어서 대표자들을 불러 연설을 하였는데, 위의 연설은 회기 중에 이루어졌기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의회는 여왕의 독점권 허여가 일으킨 폐해와 관련하여 논쟁 중이었는데, 여왕이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회기 중이라도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틸버리 연설과 마찬가지로 이 연설 또한 고도의 수사적 기술과 감정적 호소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 빼어난 수작으로 평가 받으면서 '골든 스피치'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연설에서 여왕은 1593년에 이어 또 다시 신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신

19) *Elizabeth I: Collected Works*, eds. Leah S. Marcus *et al*. (Chicago and London, 2000), pp.337-338.

민들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군주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자신처럼 신민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보다는 신민들의 복리를 더 배려하는 군주는 만나지 못할 것(they may have a prince more wise, but never still they have a prince more lovinge unto them or more carefull of them for theyr welfare then my selfe will be)"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에게는 그 신민들이 평화와 풍요 속에서 번영을 누리길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세속적 욕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독점권의 폐해문제는 자신의 뜻과 다르게 발생한 일이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신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를 거론해준 하원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가리켜 자신이 가진 가장 뛰어난 신민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

여왕은 또한 이 연설에서 자신이 가진 '잉글랜드성(Englishness)',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나라와 신민들을 위해 희생, 헌신해온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부(先父)인 헨리 8세에 대하여 잉글랜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억을 최대한 활용하였다.[21)] 잉글랜드를 독립적이고 위대한 국가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평화와 번영의 제국으로 이끄는 자신의 치적을 연결시킴으로써, 신민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처녀왕의 기적으로 왕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청중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결국 청중들로 하여금 독점권 문제와 관련하여 여왕도 선의(善意)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작용했을 것이다.

상비군, 경찰, 직업적 관료제도 등 법과 정책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튜더 왕조의 군주들은 신민들의 자발적 복종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율적인 통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의 여성 군주라는 취약성을 가진 엘리자베스의 경우는 보다 특별한 방책이 필요했다.

---

20) T. E. Hartley, ed. *Proceedings in the Parliaments of Elizabeth*, III,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5), pp.28-29.

21) David Loades, *Elizabeth I: Golden Reign of Gloriana* (Richmond: the National Archives, 2003), pp.84, 89.

엘리자베스의 선택은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당시 잉글랜드 엘리트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커먼웰스'사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자신을 확실하게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잉글랜드는 모든 계층의 신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없이는 자신도 행복할 수 없으며, 사회 없이는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공동운명체였다. 여기에서 여왕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우주론적 존재이며 공동체의 중심에 서있는 유일한 통합자의 위치를 가진 인물이었다. 또한 여왕은 공동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사악한 병균을 몰아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갈 책무가 있었다. 이러한 여왕의 특별한 위치는 사회 엘리트 계층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의회일지에 기록된 의원들의 발언들에 의해서 확인된다.[22)]

유기체적 공동체가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주와 신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터인데, 엘리자베스는 이를 '사랑'의 관계로 규정했다. 엘리자베스는 1592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나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your love for me)'은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사이의 사랑도 아니고, 연인 사이의 사랑도 아닌, 커먼웰스 공동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즉 사랑은 공동체적 책무였다. 르네상스 휴머니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 신플라톤주의의 우주관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부분들(parts)이 상호 협력적 구조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엘리자베스는 이 공동체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질료를 쏟아 부은 것이다. "나는 신민들에게 빛을 주고 안락함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처녀초의 심지(a taper of true virgin wax)로 살아온 삶에 만족한다." 이는 1601년 그녀의 마지막 의회 폐회연설에서 남긴 말이다.[23)]

엘리자베스는 상징적 권력을 창출하여 부족한 물리력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초상화를 활용하는 전략을 성공적

22) *Proceedings*, p.22.
23) *Proceedings*, p.278.

으로 펼쳤다. 새끼들에게 먹일 먹이가 부족할 때 스스로의 가슴을 쪼아 피를 내서 먹이는 펠리컨을 통해 자기희생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녀 투치아의 체를 통해 순결한 처녀가 가지는 신성한 능력을 과시했다. 투치아는 자신의 순결을 의심받자 티베르 강가에서 구멍 뚫린 체에 물을 담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베스타 사원까지 운반하는 기적을 행했다. '태양이 없이는 무지개도 없다'는 글이 들어있는 '무지개 초상화'는 처녀 여왕이 이끌어낸 국민적 평화와 번영을 상징했으며, 스페인 무적함대의 파멸을 배경으로 하는 '아르마다 초상화'는 신이 처녀여왕의 존재를 신뢰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24)]

그녀의 대중연설은 이렇듯 자신의 취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킨 초상화의 또 다른 버전이었고,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녀의 담론체계는 유기체적으로 결합된 커먼웰스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고, 그럼으로써 숱한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었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하다라도 당대 일급의 휴머니스트들의 교육이 없었다면 이런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

24) 허구생, 《근대 초기의 영국: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의 국가 만들기》(한울, 2015), pp.44-71.

Abstract

The Success of Elizabeth I of England and Her Education based on Renaissance Humanism

Hur, Goosaing
(former Director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Education, Sogang University, Ph.D. in History)

Queen Elizabeth I of England (reigned: 1558~1603) is evaluated to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world-class empire by saving the country from crisis due to national conflict and division. Although she had the critical weakness of being the first female monarch in the history of England, she was able to overcome numerous difficulties such as religious conflicts between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nd build successful achievements. There were fresh policy ideas centered on Renaissance humanism, prompt judgment of the situation and the 'political prudence' in choosing the policy means of the government, and excellent speech ability to effectively persuade the people behind of her brilliant success.

Her religious 'via-media; middle way' policy she chose was a religious compromise that thoroughly excluded the extreme claims of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nd left room for compromise in sensitive areas. Unlike the moderation for ethical feasibility, it simply set the middle zone across the middle of the two extremes, and it was largely Elizabeth's invention. Also, Elizabeth made full use of the commonwealth community theory, which was spreading to the elite at the time, and she used a strategy to place herself at the center of the community. Through her speeches on the battlefield, in college,

and more frequently in Parliaments, she effectively imprinted on the people that she was a cosmological being, a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man and nature, and the sole integrator of the community. In particular, she succeeded in securing the voluntary cooperation and consent of her subjects by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rself and her subjects as ‘solidarity of love’.

Behind all of her success was her education, grounded in her Renaissance humanism, which she received from a group of humanists. Her direct teachers, William Grindal and Roger Ascham, and other Cambridge men including John Checke, Richard Cox, and Thomas Smith, were the foremost scholars of her day. They shared pragmatism, relativism of law, and the ‘commonwealth’ idea. In particular, their idea to instruct the teenage girl in a discipline that most thought profoundly unfit for a woman at all, the art of public speech, was fully outstanding.

Keyword ● Elizabeth I, Elizabeth's educational background, renaissance humanism, commonwealth theory, Elizabeth's public speech

▌논문투고일 : 2022. 6. 12. ▌심사완료일 : 2022. 6. 18. ▌게재확정일 : 2022. 6. 26.